

시장 동향

국제 석유시장의 공급과잉에 따른 국제유가 급락, 중국 경제성장을 둔화 등으로 인한 어려운 경영환경 하에서도 SK이노베이션은 SABIC, Repsol, SINOPEC 등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링 전략에 기반을 둔 사업구조 혁신을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에너지 내수시장 점유율을 높여 Market Leadership을 강화했으며, 배터리 생산라인을 증설하고 북미 E&P사업을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성장기반 확대를 위한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2015년 연결 매출 48조 3,563억 원, 영업이익 1조 9,796억 원의 대규모 흑자로 턴어라운드하며 기업가치 제고의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석유개발사업



유가 동향

브렌트유 기준으로 국제유가는 2014년 6월 배럴 당 115 달러까지 상승하며 최고점을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6년 1월 배럴 당 최저 26달러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비 OPEC 국가의 비전통 석유 생산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OPEC 회원국 역시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량을 줄이지 않으면서 공급 과잉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북아프리카 일부 국가의 내전이나 중동지역 내 이슬람 무장단체의 준동을 비롯한 북아프리카중동지역의 정세불안으로 인해 유가에 대한 불확실성은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 주요 동향

미국이 오일샌드, 셰일가스과 같은 비전통 에너지 자원을 중심으로 원유 공급을 폭발적으로 늘리면서 석유 개발 산업에 다양한 변화가 촉발되었습니다. 공급과잉으로 인해 유가가 급격하게 떨어져 심해 유전(Deep-water) 석유 개발, LNG 개발, 극지 유전 개발 등 고비용 프로젝트의 채산성이 악화되었으며, 대다수의 업체들은 이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거나 유보하고, 수익성 중심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석유 사업



석유제품 소비 동향

2015년에 미국 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는 국제 석유시장의 공급과잉에 따른 지속적인 국제유가 급락과 중국 경제성장을 둔화 등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차량 등록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항공수요 역시 늘어남에 따라 휘발유, 경유 및 항공유 수요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으며, 전년보다 크게 떨어진 유가에 힘입어 중질유 및 난방용 등유 수요 또한 증가하면서 석유제품의 누적 내수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5.9% 증가했습니다.

화학 사업



기초유화사업 동향

2009년 이후 중국이 경기부양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면서 석유화학산업 시황이 다소 회복되는 듯 하였으나, 유로존 재정위기와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가스, 석탄 등 비전통적 저가원료의 생산 및 소비가 확대되는 점 역시 시장 변동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2015년 유종별 내수수요 실적

(단위: MB/D)

	휘발유	등유	경유	중질유	항공유	LPG	아스팔트	계
	210	44	428	105	94	245	28	1,154
전년동기대비	4.2%	5.2%	7.9%	15.3%	7.5%	(0.3%)	9.7%	5.9%

유종별 누적 소비 추이

(단위: 천 배럴)

구분	휘발유	등유	경유	중질중유	나프타	LPG	기타	전체
2014년	73,475	15,414	144,755	31,094	396,979	89,674	70,701	822,092
2015년	76,570	16,230	156,354	35,903	411,598	89,295	69,111	855,061
증감	4.21%	5.29%	8.01%	15.47%	3.68%	-0.42%	-2.25%	4.01%

*2015 사업보고서 기준

화학소재사업 동향

화학소재사업은 자동차, 전자, 건설, 제약, 의류소재 등의 원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이므로, 전방산업의 경기변동에 민감합니다. 최근에는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해 온 중국의 수요가 산업을 크게 성장시켰으나,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의 자급률이 증가하여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화학소재 업체들은 남미, 동남아시아, 인도 등 신흥 성장시장으로의 영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활유 사업



국내외 경쟁 여건 동향

국내 윤활기유(Lubricant Base Oil) 시장은 정제 및 고도화설비를 갖추고 있는 4개 정유사가 참여 중으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서, 대부분의 제품이 기타 아시아 지역, 미주 및 유럽 등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해외 윤활유 완제품 시장의 경우 Shell, ExxonMobil, BP, Chevron, Total 등 오일 메이저 회사들이 점유하는 가운데 각 지역의 현지 윤활유 제조업체들도 다수 포진하여 국내 업체의 신규 진출과 경쟁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국내외 시장 동향

윤활기유와 윤활유 완제품의 품질 및 성능에 따라 수요 변동이 상이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품의 성능과 사용수명이 상대적으로 열위에 놓인 저급 광유(API Group I) 윤활기유의 수요는 성장성이 둔화되면서 향후 시장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고급 광유(API Group II/ III) 윤활기유 시장은 환경규제에 따른 소비 성향의 변화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대형 배터리 산업 동향

중대형 배터리 산업은 전기자동차, 에너지 저장 장치(ESS^(주1)) 등에 사용되는 대용량 리튬 이온 전지를 생산, 판매하는 산업입니다. 세계 각국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주2))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환경 친화적인 전기자동차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의 출력을 안정화 할 수 있는 ESS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시장이 폭넓게 확대되고 성장 속도 또한 빠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보전자소재산업 동향

당사의 정보전자소재 사업은 리튬 이온 전지 분리막(LiBS) 등의 전자소재 사업과 연성동박적층판(FCCL) 등의 회로소재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튬 이온 전지의 양음극 간 접촉을 막고 이온의 이동 통로를 제공하는 핵심소재 LiBS는 배터리 시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FCCL은 스마트 폰, 태블릿 PC 등의 회로기판에 사용되는 주요 소재로, IT기기의 고성능·소형화 추세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급과잉 현상에 따라 업체간 경쟁이 지속되고 있지만 시장이 꾸준히 성장함에 따라 향후 수급상황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1)

ESS: Energy Storage System, 대규모로 생산된 전력을 일시 저장한 후, 필요 시 끌어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주2)

Energy Security: 에너지는 모든 경제활동의 토대이자 국가의 안전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의 안정적·합리적인 공급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